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성야 (2024년 3월 31일)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 그림: 이은숙 안칠라 수녀님 (출처: 바오로 딸 콘텐츠즈)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 나셨다.” (마르코 16,6)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여
성가를 들을 수
있으세요.

위령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227 (요한 11,25)

힘있게 *mf* 웨일스 성가

1. 나 는 부 활 이 요 생 명 이 니
2. 나 를 믿 는 자 는 죽 더 라 도
3. 나 는 생 명 이 요 진 리 이 며

목 마 른 사 람 은 내 게 오 라
영 원 한 생 가 명 을 얻 으 리 라
너 희 가 가 야 할 길 이 로 다

p

무 거 운 짐 진 자 명 에 벗 겨 주 고
기 뻔 이 님 치 는 아 버 지 집 에서
누 구 나 이 길 을 충 실 히 결 으 면

f

영 원 한 생 명 을 내 게 주 리
영 원 한 행 복 을 누 리 리 라
영 원 한 복 락 을 얻 으 리 라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마르코 복음 16, 1-16

1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3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 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4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5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겹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6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7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8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집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9 예수님께서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10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12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14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1베드 3,18)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굳건한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A2]
-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1베드 3,21)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바른 양심’을 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램과 섞여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나의 기도에 대한 경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A2]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이 말씀이 신앙 생활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AA2]
-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말씀으로 기도하며, 모든 피조물은 때가 차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날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돌아가는 길을 순조롭게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CT]
- 건강하셨던 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두 분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생로병사’라는 네 글자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맴돌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착잡해집니다. 숨 가쁘게 살아온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건강이 버티어 주기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게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번영과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건강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갑시다.
말씀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CT]
-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1베드 3,18)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1]
-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1베드 3,18) 말씀으로 기도하며,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V1]
-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1베드 3,18) 말씀으로 기도하며, 작년 5월에 냉담하던 저희 가정을 다시 하느님게로 이끌어 주신 도로테아 자매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NV1]
-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1베드 3,21) 말씀으로 기도하며, 온갖 모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서 더 이상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다시 힘을 내고 바른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NV1]
-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늠이 안 되고, 단 한 번이 아닌, 태어나서부터 삼십 년이 넘게 그 끝을 알면서 그 길을 가실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2]
- “**유혹**”을 묵상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유혹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하며 행동하면 하느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V2]
- “**무지개**”를 묵상하며, 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는 하느님의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현재도 존재하는 무지개를 보며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NV2]

-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창세 9, 13) 라는 하느님의 표징에 대한 약속이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견디고 나아가면 무지개라는 그분의 위로와 약속이 함께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2]
-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 1,15)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활이 다가옴을 인지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RC2]
-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1베드 3,21) 말씀으로 기도하며, 세례를 받는다고 저절로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양심을 청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심의 의미가 개인 또는 사회마다 다양하고, 옳은 기준을 따지기에 힘든 세상입니다. 무엇이 바른 양심인지 고심하고, 되새기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R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 성가 셀라책 276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휴대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여
성가를 들을 수
있으세요.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276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

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가 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지 너를 위

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 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 - - 랑

너의 가는 길 - 주의 사랑가 득하기를 축복 - 해 -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 때 마 다 늘 함께 할 게

하느님 보이신 - 큰 사랑으로 - 나 또한 너 - 를 사랑 - 해 오래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영길 SJ

당신은

비바람 폭풍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덤덤히 걷게 하는 이.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게 하는 이.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게 하는 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Lk 9,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본당 편집회에서 전하는 배영길 신부님(베드로, 예수회)의 ‘당신은’ 그림과 시입니다. 기도로 체험한 하느님의 현존을 20여 년간 매일 복음과 기도 묵상 중 성찰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노트에 쓰고 그린 그림과 시로 봉헌하신다고 합니다.

배 신부님의 인스타그램(@baeyounggil)에는 성경구절과 시가 어우러진 그림이 한 장씩 매일 게재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묵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SNS를 통해 자신의 그림을 저작권 등록 없이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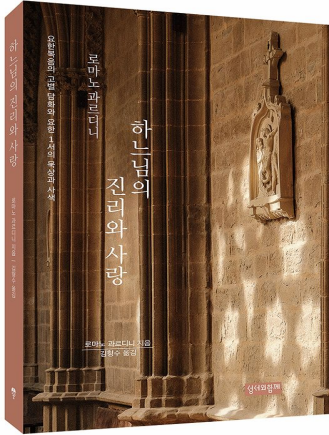
배 신부님은 “기도 이미지는 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했구나’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기도에 함께 했구나’라는 현존 체험으로 기도가 발전할 수 있죠.”라고 말합니다.

(출처: 2024년 1월 14일. 가톨릭 신문. P.14.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93942)



주님 부활 대축일 추천 서적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

본당 편집회에서 사순시기를 보내며, 수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은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진리는 사랑이며, 이 점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요한 복음서와 요한의 첫째 서간을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님(1885~1968)의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 풀어낸 책입니다.

책은 소크라테스와 석가와 같은 위대한 성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곧 과르디니 신부님은 성서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 그리고 세상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영역의 진리는 완전히 같을까요? 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느님의 진리는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 지은이: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
- 옮긴이: 김형수 신부
- 출판사: 성서와함께

많은 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을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자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이 ‘하느님 안에서의 겸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리 다툼하며 반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 육화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섬기며 자기보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앞에서 고개를 숙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이 겸손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 처음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필연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필연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으로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은 또한 예수님의 고별 담화와 요한의 첫째 서간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적 실존철학의 입장에서 실존과 신앙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던 과르디니 신부님은 이성적 사유와 일상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냉철한 이성과 그것을 탐구하는 열정에 기반한 성찰을 통해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성서의 진리와 철학, 세상의 진리가 다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 뮌헨 예수회 철학대학에서 수학한 김형수(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부님은 “독일의 한 헌책방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보물을 찾은 듯 기뻐다”며 “과르디니 신부님은 하느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사랑과 진리라는 주제어에 담아 심오한 사유로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성서와함께. https://withbible.com/shop/item.php?it_id=1679472526)



2024 2월 성경통독 월례모임 창세기 말씀과 함께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

-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어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었습니다.
- 야곱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치열하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처럼 하느님과 씨름도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여전히 부족한 저를 당신의 계획에 쓰시는 분이심을 야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새로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창세기 27장 34절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달라고 목 놓아 우는 에사우의 모습이 참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힘듦이 녹아들어 저도 함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에사우와 함께 눈물 흘리고 나니 주님께서 눈물 닦아 주시며 토닥여 주십니다. 이제껏 누려 왔던 많은 것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아니더냐... 당연하다 여겼던 그 작은 평범한 일상의 행복들이 은혜임을, 축복임을 또 깨닫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창세기 31장 24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는 말씀을 읽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날 때 말을 함부로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습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걸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일깨워 주십니다.
- 야곱은 그야말로 집착의 달인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집착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것을 놓아야 참 평화와 자유를 얻을 텐데, 야곱처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움켜쥔 손을 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 이번 통독에서 제가 찾은 주제는 ‘기다려라.’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중노동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지금 바로 실현될 수도 있고, 아주 먼 훗날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그 삶도 내 인생의 일부임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 에사우와 야곱의 화해를 묵상하면서, 제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 화해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 야곱의 이야기는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의 ‘금수저 흙수저’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성경통독을 통해 이 혼돈의 실타래를 잘 풀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

- 요셉 이야기부터 하느님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보다는 이름 없는 형태로 현존하시면서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전개되는 모든 사건을 이끄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이 제아무리 뛰어나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함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평화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리게 되는데 우선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묶여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자기성찰과 인정과 내려놓음과 온전한 의탁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하느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요셉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고생과 고난의 와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 안에서 벌어졌을 수많은 사투가 느껴집니다. 저도 요셉을 따라가 보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며, 요셉이 품은 희망을 바라보며...
-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도 하느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도나 활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런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고 실천하자는 의미입니다.
- 요셉의 긴 고난에도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서 맡기고 귀 기울이는 모습,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거나 포기함 없이 항구하게 듣고 따르는 그의 모습에 오늘의 나약한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듣고, 헤아리고, 따르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인간은 성장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가 결정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고 실천하면서 살아 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갑니다. 저도 요셉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 겸손을 찾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창세기 통독을 마치며

- 이번 창세기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초월성을 강하게 느끼며,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민 축복의 전달자로 선택하신 성조들, 아브라함과 사라 → 이사악과 레베카 → 야곱과 레아와 라헬 →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만민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탈출기 말씀을 읽고 하느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